

제 37 호 효율적 강의법

새시대 교수법을 떠올 때마다 많은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지난 주에 받은 아래 편지는 여러분들과 나눠 볼까 합니다.

조 교수님께,

저는 현재 00대학교에 근무하는 김00 교수입니다. 조교수님의 좋은 글을 잘 읽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조교수님의 최근 몇개의 강의법에서 강의평가 및 그에 대한 feedback에 관한 부분입니다. 물론 너무나 상투적인 뉘즈리가 되겠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교수에 대한 모든 [평]가는 논문이나 특허와 같은 연구생산물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교수들 사이에서는 강의를 많이 하는 교수는 일종의 능력없고, 한심한 (?) 존재로 인식되기도 하지요.

[중략]...그래서 앞으로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엄청난 연구중압에 억눌려 있고, 시간이 부족한 한국의 교수들이 어떻게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매우 적은 강의를 담당하는 미국과는 다른 현실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좋은 강의를 기대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것 같군요.

김00 드림

저는 위의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찡하였습니다. 이 글을 쓰신 교수님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교수 생활을 시작할 때 위 편지에 지적된 이슈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동감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교수직을 시작한 첫 학기 내내 마음이 무척 무거웠더랬습니다. 강의를 끝내면 뭔가 좋지 않은 기분이 저를 괴롭혔지요. 강의하는 동안 기운이 쭉 빠지고, ‘무사히’ 끝내도 영 찡찡하고, 연구실로 되돌아와서는 깊은 허탈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승진을 하자면 연구실적을 올려야 하니 강의를 하고 싶은만큼, 할 수 있는만큼은 커녕, 해야 할만큼 마저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짓을 은퇴할 때까지 적어도 40년이나 더 해야 하는데, 이대로 가다간 제가 우울증 환자가 되던지, 아니면 완벽한 사기꾼이 되겠구나 생각 되었습니다. (30분 짜리 강의를 준비하고서는 한 시간으로 늘리는 일은 사기행위라 볼 수 있겠지요.)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하루 24시간 한정되어 있고...별 도리가 없더군요,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 이외에. 대학원 시절 때에 훈련받은 연구기술로 인해 나름대로 연구는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의기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어서, 사실 강의를 효율적으로 한다는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강의 기술에 대해 찾아보고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수법을 터득하고나니 강의를 능력껏, 욕심껏 하게 되었고, 몸과 마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뿐만아니라 강의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니 시간적 여유가 나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연구에 치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하게 되어 연구실적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회답은 이렇습니다. 제가 연재해 드리는 <새시대 교수법>은 이미 “시간이 부족한 한국의 교수들이 어떻게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강의 기술에 약간의 시간투자를 하시면 투자한 시간 몇 십배, 몇 백배를 되돌려 받게 됩니다.

사실 위 편지에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지적되어 있습니다. 연구와 교육(teaching)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회신 드리겠습니다.

조벽 드림

추신: 미국 4년제 대학 교수의 40.4%가 한 학기에 4과목 이상 가르칩니다. 학부중심대학의 경우, 한 학기에 3과목 이상 강의 하는 교수는 70.2%입니다. 한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는군요.

© 조벽, 1999